

## 경기도

### ▶▶ 연천 AI 재입식 시험 개시

경기도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지난 5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장을 대상으로 재사육을 위한 입식시험을 시작했다고 지난 8월 16일 밝혔다.

입식시험은 6~12주령의 건강한 닭을 3주 동안 시가 발생했던 농장에서 시험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정밀검사 결과 농장 내 AI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닭 등 가금류를 재사육할 수 있다.

연천지역에서는 지난 5월 미산면 산란계 농장에서 시가 발생, 인근 농장 7곳으로 확산돼 닭 6만4437마리가 도살 처분됐다.

또 발생 농가 반경 3km에 방역대를 설치, 가금류 사육농가 181곳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도 제2축산위생연구소 관계자는 “올해 경기도 북부 4개 지역에서 발생한 AI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가금류 사육농가와 관련 단체 등은 철저한 소독을 하는 한편 시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 ▶▶ 성남시, 관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정착

경기 성남시가 관내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모니터링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나 부정불량식품 유통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극소수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8월 24일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5명으로 6개반을 편성, 4월부터 2개월간

총 1,088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다소비 식육품목별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점검 모니터링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 결과 각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는 대부분 업소가 준수하고 있었고, 원산지 거짓표시나 부정불량식품 유통 등 중대한 위법행위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15업소,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 위반 31업소, 거래명세서 6개월간 미보관 16업소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부적합업소에 대해 현지계도를 통해 위반 사항을 즉시 시정해 이행토록 했다.

점검 대상 음식점은 구제역 파동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취급률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19%, 16% 감소했고, 돼지고기 37%, 닭고기 29%, 쇠고기 18%, 오리고기 16% 순의 식육별 취급율을 나타냈다.

식육품목별 국내산 소비는 오리고기가 가장 높아 98.2%의 국내산 소비율을 나타냈으며, 이어 닭고기 95%, 돼지고기 62% 순이었다.

쌀은 음식점의 100%가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배추김치는 업소의 85.5%가 국내산을, 업소의 14.5%가 중국산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조사에 응한 업소 가운데 79%의 음식점이 지난 구제역 여파로 식육 원가를 인상했으며, 손님이 감소해 약 80%의 업소가 평균 30~40% 정도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사 대상 업소는 당초 1,235업소였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147개소가 폐업해 1,088개 업소가 조사에 응했다.



시는 조사기간 동안 수입농산물의 범람과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콩, 보리, 밀가루, 나물 등 농산물과 어패류 등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자율표시를 하도록 권장했다.

또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뼈, 내장 등 식육 부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안내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돼 대부분 업소들이 시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계도를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풍토를 고착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원도

#### ▶▶ 강릉시, 축산농가 순회진료 실시

강릉시는 전업규모 이상 가축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소모성질환 순회진료를 실시한다.

시는 소모성질환(기생충, 호흡기, 소화기 질병)의 진료·관리로 농가손실을 예방하고, 하절기 이후 영양상태 불량으로 유발되는 생산율 저하의 보전 및 집중 사양관리 지도를 위해 오는 9월 29까지 매주 수, 목요일 순회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순회진료는 가축위생시험소, 강릉축산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축산과 주관으로 실시되며, 수의사 4명과 보정요원 2명으로 구성돼 보다 전문적인 진료 및 사양지도가 기대된다.

전체 진료대상은 20두 이상 소 사육농가 141호 7,404두, 500두 이상 돼지 사육농가 16호 4만

3,500두, 3,000수 이상 닭 사육농가, 오리 사육농가 30만6,100수 등이다.

작년 순회진료 결과 관내 축산농가의 고질적인 설사병, 호흡기질병 310건 및 임신질환, 외과질환을 다수 치료했으며, 가축위생시험소 병성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양관리기법을 제시하여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순회진료는 작년에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가별 질병 표준데이터를 구축해 지역별 질병발생 유형을 분석, 관내 축산농가의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고, 악성가축전염병을 미연에 차단할 계획이다.

### 충청남도

#### ▶▶ 천안, 육류 원산지허위표시 무더기 적발

육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어린이집과 식당, 기업체 구내식당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천안시 특별시범경찰팀(이하 특사경)은 지난달까지 2개월간 여름철 성수기 식품, 환경, 청소년, 공중위생, 원산지 등 5개 분야 합동단속으로 1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월 1일 밝혔다.

단속결과 천안시 두정동 Y어린이집은 어린이 급식용 쇠고기를 호주산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속였다. 목천읍 B음식점도 국내산 젓소와 호주산, 뉴질랜드산을 섞어 사용하면서 이를 호주산으로 표기하다가 적발됐다.

천안시 성환읍 S급속 구내식당 위탁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직산읍 K제약 구내식당 위탁업소는 미국산 닭고기를 브라질로 표기했다가 단속됐다.

## 충청북도

### ▶▶ 한우·닭·오리 등 브랜드 축산물 한마당

충북의 브랜드 축산물을 한 곳에서 보고 싸게 살 수 있는 한마당 잔치가 펼쳐진다.

충북도는 도내 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농협 충북지역본부, 축산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오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옛 대농부지에서 '함께하는 충북 축산 페스티벌'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의 특징은 그 동안 따로 따로 열린던 충북 축산물 브랜드전(올해로 4회), 충북 한우 고급육 경진대회(6회), 충북 한우 사랑축제(4회), 축산인 체육대회(9회)를 한 데 모은 것.

도내에 생산·유통 기반을 갖춘 30여개 생산자 단체와 가공업체가 참가하는 축산물 브랜드전에서는 한우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등을 전시하고 특별 할인판매도 한다.

도는 브랜드전에 상호교류 협정을 맺은 제주의 특산물도 선보일 참이다. 제주도 말고기와 말고기 가공식품, 흑돼지 고기, 수산물 특별 판매전을 준비중이다. '도심 속 목장 나들이' 행사에서는 젓짜기, 건초 주기, 송아지 우유 주기 등 어린이 체험 행사를 선보인다.

## 경상북도

### ▶▶ 영천, 배합사료내 항생제 사용금지 농가대책 강화

영천시는 배합사료 내 항생제 사용 전면 금지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축산농가의 철저한 사양관리와 농장 차단방역을 위한 홍보에 나서는 등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합사료 내 항생제 첨가 전면 금지로 축산농가의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 및 축산물의 항생제 내성률 감소로 이어지면서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료 내 항생제 사용 전면 금지로 인해 농장 질병 증가와 생산성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이전까지 항생제를 사료에 첨가함으로써 동물의 질병예방 뿐만 아니라 성장촉진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하지 않을 경우 가축의 성장 지체, 사료 효율 감소, 빈번한 질병 발생과 폐사율 증가 등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

축산관계자는 사료첨가용 항생제 금지 이후에도 농가에서 치료용 항생제 사용은 가능하다고 하며,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 보다도 농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울러 축산농가는 외부로부터 전염병을 막기 위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축사정문에 출입자, 출입차량 및 출입물품 차단방역 안내판을 설치하고 출입 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경계는 울타리를 설치해 외부와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종축은 질병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농장에서 구입하고 외부 구입 가축은 격리축사에서 4주 이상 격리 후 소독이 철저히 된 사육장으로 편입시켜야 하며 돼지와 닭은 동시입식/동시출하를 실시하고, 농장 내 상재질병, 계절적 질병 진단 후 백신 프로그램에 따른 예방위주 질병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광주광역시

### ▶▶ 추석 물가안정대책 수립 추진

광주시는 오는 9월 9일까지를 추석대비 물가안정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성수품 및 주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등 물가안정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우리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수·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추석 대비 물가안정을 위한 분야별 특별대책을 마련해 활동에 들어간다.

시는 특별대책기간 중 15개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6개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 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가격동향을 매일 점검하는 등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중점관리 농수축산물 15개 성수품목은 사과, 배, 배추, 무, 밤, 대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조기,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등이며, 인상이 우려되는 개인서비스요금 6개는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이용료, 미용료(파마)등이다.

## 전라남도

### ▶▶ 태풍피해 복구 지원금 '추석 전 지급'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8월 16일 "태풍피해 농수산인에 대한 생활비 및 복구비 등을 추석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토론회를 갖고 "태풍피해를 빨리 복구해 피해 농수산인들이 희망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며 "보상 및 재기시스템을 신속하게 가동해 피해 농수산인에게 지급될 생활비 및 지원금 등에 대해 정부 지원액이 확정 교부되기 전이라도 예비비를 풀어 추석 이전인 8월 말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귀촌해 새로 (어업양식 등을) 시작한 사람들의 경우 재기하려는 의욕이 큰 만큼 그것 자체 만으로도 신용이 된다"며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들의 신용을 보증해주는 등 하루빨리 복구자금을 마련해 재기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독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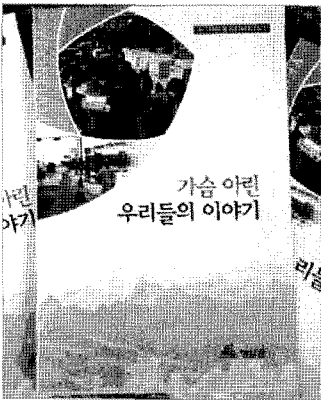
또한 "해안가는 지역 특성상 깨와 같이 바람에 약한 작물의 경우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과거 바닷가에서 자급에 의존해야 하는 시절엔 다양한 작물을 심어야 했겠지만 지금은 유통체계가 발달해 그럴 필요가 없는 만큼 바람에 약한 작물 재배를 삼가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재배할 경우 조기 재배로 태풍철 이전에 수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섬 개발과 관련 "가장 시급한 숙박시설 투자유치를 위해 주민 협조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투자유치 활동도 개별 기업 접촉보다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리조트·호텔업자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도가 역점 추진하는 에너지 자립섬 사업에 대해서도 오는 2020년까지 발전량의 10%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야 하는 발전회사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에 나서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추진에 대해선 "축산환

경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부적합한 농가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폐쇄토록 해야 한다”며 “특히 이제 가을이 오면 오리·닭 농가에 대해 환경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철새들이 날아드는 호수 주변 등에 있는 축사는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 영암군, AI·구제역 공직자 애환 담긴 수기책자 발간



영암군은 지난 혹한 한파와 폭설 속에서 휴일도 반납한 채 AI 및 구제역 등 축산 재난에 맞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과정과 군정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보람되고 감동적인

사례 등을 진솔하게 서술한 수기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영암군에 따르면, 앞으로 군정기록으로 활용할 수기는 AI 살처분 및 구제역 방역과 사회복지시책, 지방세 징수, 공공시설운영 등 군정전반에 관한 현장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수록한 논픽션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AI·구제역 업무추진현황, AI 개요 및 긴급행동지침 등을 부록으로 추가 구성하여 지난 겨울 공무원들의 애환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전라북도

▶▶ 익산시, 왕궁개선사업 국비 조속 지원 건의

전북 익산시는 지난 8월 30일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 점검차 익산을 찾은 윤종수 환경부 차관에게 국비의 대폭 지원을 건의했다.

윤 차관은 이날 이창석 국립생태원 추진기획단장, 이윤택 전주지방환경청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왕궁 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해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유기상 익산시 부시장은 “환경 개선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 예산 130억원 중 121억원을 국비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익산시 왕궁면 왕궁정착농원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차단하기 위해 이 일대의 축사를 사들여 철거하고 생태하천과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2015년까지 총 1천1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호우피해 축사·농작물 방제

전북도는 호우피해지역의 전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축사를 긴급 방제한다고 지난 8월 22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7~9일 태풍과 집중호우로 축사 24동이 파손되고 닭과 돼지 등 47만여 마리가 물에 떠내려가거나 폐사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정읍 등 8개 시·군 농가를 대상으로 축협과 축산연구소의 소독 차량을 동원해 지난 8월 24일부터 소독에 나섰다.

앞서 도는 각종 병해충 억제에 위해 지난달 13

일부터 농작물이 침수된 2만 6천여ha의 논과 과수원 등에서 긴급 방제를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호우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작물 침수지역과 축사시설, 하천변 등 병해충 서식지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 ▶▶ 뉴캐슬병 청정지역 재확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도내 가금류를 대상으로 1차 확인 검사 결과 악성 가금전염병인 뉴캐슬병이 발생하지 않아 청정지역임을 재확인했다고 지난 8월 16일 밝혔다.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닭, 오리, 꿩 등 가금류 사육농가 22가구를 대상으로 1,780건에 대해 항원 감사를 실시한 결과 뉴캐슬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또 40가구 1,840건에 대해 항체 감사를 벌인 결과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가 모두 형성돼 있음을 확인했다.

제주도는 2009년 12월 아시아 최초로 가금전염병 청정지역 국가인증을 받은 후 매년 2회 이상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금전염병 청정화 검사는 뉴캐슬병 바이러스의 순환이 없다는 여찰 검사(항원 검사)와 뉴캐슬병 백신 프로그램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항체 검사로 구분돼 진행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9월부터 12월까지 2차 청정화 확인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가금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백신접종을 철저히 해줄 것과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 ▶▶ 제주도 축산물 항생제 내성균 깨끗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물 항생제 내성균과 유해 잔류물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검사결과, 올해 단 한건도 문제시되는 축산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지난 8월 8일 밝혔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닭과 동물위생시험소로 의뢰되는 가검물을 대상으로 살모넬라균 등 12종에 대한 항생제 내성균 검사와 도축 출하축의 농가별 검사시료를 채취, 유해 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항생제 내성균 검사는 2009년 200건, 지난해 191건, 올해 142건 검사결과 문제 항생제 내성균이 단 한건도 검출되지 않았다.

축산물 항생물질 검사는 2009년 1만2천985건, 지난해 1만4천389건, 올해 6천339건 검사결과 2009년 27건, 지난해 8건이 발생했으나, 올해는 지금까지 잔류위반 발생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를 도축장 규제검사 강화 및 축산농가가 동물용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휴약기간을 준수케 지도한 때문으로 보고 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일부 축산농가에서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받지 않고 자의적인 동물용 의약품 사용으로 항생제 다제내성균 발생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수의사 진료와 처방을 받고 사용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농가에 당부하고 있다. 